

### 섭취분량에 따른 식품빈도조사방법의 일치도 연구

한명희\*, 김미경, 최보율<sup>1</sup>, 이상선.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sup>1</sup>.

식이와 여러 만성질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식이가 어떻게 특정질환의 발병에 관여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전이나 과정은 그 학문적 지식이 아직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반면, 기존의 영양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밝혀지지 않았던 식습관과 질병발생의 인과성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많은 영양역학적 연구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영양역학연구의 식이조사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을 이용하여 섭취분량에 대한 설문양식을 달리한 두가지 방법, 즉, 폐쇄형 설문과 개방형 설문을 비교함으로써 폐쇄형 섭취분량조사법에 의한 연속적인 섭취분량에 대한 정보손실정도가 추정된 영양소 섭취수준과 대상자분류의 일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폐쇄형 섭취분량조사법으로 산출한 영양소 섭취량이 개방형 섭취분량조사법에 의한 영양소 섭취량보다 낮게 나타났고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비율은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폐쇄형 섭취분량조사법이 개방형 섭취분량조사법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영양소 섭취량과 식품항목별 섭취량의 상관성은 모든 영양소와 식품에서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각 방법에 의한 대상자분류의 극단적인 불이치율은 1%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연구결과 폐쇄형 조사방법이 대단위 역학연구에서 대상자 분류를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개방형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을 분류한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